

정부기관소식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13.10월~'14.5월) 및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OIE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13.10.2~'14.5.31) 동안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10월 2일 예년보다 일찍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 상황실 설치 일자 : ('10) 11.4 → ('11) 10.6 → ('12) 10.4 → ('13) 10.2

이 장관은 OIE에 구제역 청정국 신청(10.11.)을 앞두고 금번 특별방역대책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금년에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제점검 결과 등에서 전년보다 과태료 부과 농가가 증가하는 등 방역의무 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 의지도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금년도에 방역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농가 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작년 대비 약 5배 증가하였다.

*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 ('12년) 16건 →

('13.1~7) 84건

전국 방역실태 일제점검 결과(8.8~8.29), 동일 지역을 점검하였음에도 중앙과 지자체의 적발율이 10배 차이가 났다.

* 방역실태 일제점검 적발률 : (중앙) 17.9%, (지자체) 1.7%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율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를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우 다소 하락 추세를 보였다.

* 번식돼지 구제역 백신항체형성률 저하 : ('12년) 80.1% → ('13.9) 78.9%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모든 방역관련 지자체, 공공기관·단체(309개소)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4개반 : 방역반, 점검반, 현장반, 홍보반)에서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
- ② 중앙기동단속반을 3배로 확대 편성·운영하고,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
 - 매주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방역점검 및 관리
- * 중앙기동단속반 : (평시) 8개반 16명 → (강화) 24개반 48명
 - 장·차관 등 간부의 수시 점검 및 지역담당관 월 1회 점검
- ③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월 1회 이상 방역점검토록 강화
- * 지자체장의 방역점검은 연말에 지자체 가축방역 평가에 반영
- ④ 구제역은 재발방지의 핵심이 백신접종인 만큼

-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점검을 위해 취약농가 집중 점검 실시
- * 구제역 백신 접종율이 낮은 하위 시군 일제점검 (10월 ~ 개선시)
 - * 백신접종 취약농가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10월)
 - * 구제역 경험(NSP검출)농가 일제점검 : 농가별 기록관리카드 실태 집중점검(167농가)
 - NSP(Non 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 → '10~'11년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에 감염되었지만 회복되어 구제역 바이러스는 없지만 일부항체(NSP)가 남은 농가를 말함
- ⑤ AI는 철새도래지 주변 및 과거 발생지(36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협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의 소독 및 예찰 강화
- *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시설 소독강화 : (평시) 주1회 → (강화) 주2회
 - * 예찰강화 : (평시) 닭, 오리 등 가금중심 → (강화) 야생조류 분변·폐사축·포획검사 강화
- ⑥ 구제역·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 강화
- * 중국 등 위험노선 휴대품 일제검사 : (평시) 1일 1편 → (강화) 1일 2편
 - * 축산관계자 출입국 특별관리 : (평시) 공항만 출입국 관리 → (강화) 출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 관리
- ⑦ 유사시를 대비한 초등대응 강화를 위한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확대
- *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AI에 대해 무작위로 시·군 선정 현장훈련 (2회 이상)
 - *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요령 등 홍보 : (평시) 반기

별 1회 → (강화) 월 1회 및 이동이 많은 설연휴 등에 별도 홍보 실시

- ⑧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역의무를 불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
- * 만일, 구제역·AI가 방역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될 경우 해당 농가에 구상권 청구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구제역·AI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14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10.1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OIE에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축산·소비자관련 단체장,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이준원 차관보)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거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자문을 하기 위해 농림축산부장관 소속으로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차관보)를 둔다. 금번 우리나라의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ad hoc groups)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내년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 OIE 신청서 제출('13.10.11) → OIE 특별작업반 평가('13.11) → OIE 과학위원회 평가('14.2) → OIE 총회('14.5)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진으로 '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금번 신청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농식품부 내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담반(TF팀)을 구성

» 정부기관소식

하여 추진하였으며, 10.11.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OIE 평가에 대비하여 '14년에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현지설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OIE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2년간 비발생, 1년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어야 하는 등 7개 주요조건을 충족해야 함

* '14. 5월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획득 이후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16년부터 '구제역 예방접종하지 않는 청정국' 획득을 추진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골프장에 고품질 가축분뇨 액비 공급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잔디'를 '비료 사용처방'대상작물에 추가하고,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9월 16일부터 액비 사용처방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축분뇨는 환경 폐기물의 개념에서 자원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잘 부숙된 액비에 대한 농가 신뢰 회복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 연도별 자원화율(%) : ('06) 82.7 → ('08) 84.3 → ('10) 86.6 → ('12) 88.7

하지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112개 대상작물 중 잔디에 대한 액비 사용처방서가 발급되지 않아 골프장 등 잔디 재배지로 확대할 수 있는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회 등을 거쳐 잔디도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잔디를 추가함으로써 전국 400여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연간 약 240만톤의 액비 수요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물량은 1일 처리능력 100톤인 공동자원화시설 80개소에서 생산되는 액비물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물량산출 : 80개소 × 100톤 × 300일 = 2,400,000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골프장 액비 살포 시범사업'등을 통해 제도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액비 수요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품질 액비 생산을 통한 수요처 확대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는 비료생산업 등록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

였다.

*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 공동자원화 '16년, 액비유통센터 '17년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기구로부터 구제역 정밀검사 능력인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구제역진단과는 2012년 영국 및 유럽연합 국제표준연구소 주관 구제역 및 돼지수포병 정밀진단능력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고의 구제역 진단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평가받아 국제적으로 구제역 진단능력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구제역 정밀진단 능력평가 프로그램은 유럽에 속하는 국가가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기타 국가는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번 평가에는 총 65개국이 참여하였다. 모든 평가용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00% 일치하는 검사결과를 얻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구제역진단과에서는 국가방역사업과 관련하여 구제역 진단, 항원 및 항체 정밀검사, 혈청예찰 업무 등 국가표준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기술을 활용한 구제역 백신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2016년을 목표로 금년에는 구제역 백신 연구센터 준공을 위한 설계완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정도검사를 통해 국내 구제역 정밀진단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단, 검사 및 연구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제9대 허영 원장 취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9대 허영 원장 취임식을 지난 8월 29일(목) 가졌다. 허영(許寧) 신임 원장은 2011년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로 재직하였고,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및 동 대학 수

의과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대한수의사협회 부회장, 경남동물병원협의회 회장, 경남 마산시 수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허영 신임 원장은 축평원의 이해도가 높고, 축산·수의분야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축평원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기관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축평원이 준정부기관 1위 및 반부패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 동안 축산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공공기관 감사로 재직하면서 닦아온 청렴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지속발전과 축산물 유통 선진화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의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15개국의 축산물안전 관계관이 참여한 “아시아 축

» 정부기관소식

산물 안전관리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Livestock Products Safety for Asian Countries)”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아세안 FTA 상품 무역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축산물 안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참가국 축산물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개최되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9개 회원국과 OECD 원조대상 6개국 등 총 15개국에서 28명이 참가했다.

* 참가국(15개국 28명)

- (아세안 회원국) 브루나이 2, 캄보디아 2, 말레이시아 2, 미얀마 2, 필리핀 1, 싱가포르 1, 태국 2, 베트남 2, 라오스 2 *인도네시아 불참
- (OECD 원조대상국) 방글라데시 2, 스리랑카 2, 부탄 2, 몽골 2, 아제르바이잔 2, 인도 2

주요 행사 내용은 ▲ 축산물 안전 세미나 ▲ 축산위생연구소 등 관계기관 방문 ▲ 도계장 및 유가공업체 방문 ▲ 한옥마을 등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축산물 안전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참가국별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전반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축산물안전관리 체계 및 검사방법 등을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및 축산물 가공업체(하림 익산공장, 남양유업 세종공장) 등을 방문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널리 알려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시아의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대상으로 이동동물병원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민간산업동물병원 등이 부족해 가축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서비스 취약 지역 내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동물병원은 정부 3.0 취지에 맞춰 취약지역 축산농가에 질병컨설팅과 현장진료지원을 통해 현장중심의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9월부터 5개군 220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동물병원 지원 대상 지역은 충남 서천군(9월), 경북 영양군(10월), 경남 하동군(10월), 전북 진안군(11월), 경북 청송군(11월)으로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전문 진료팀이 가축질병 컨설팅과 이동동물병원 차량을 이용해 지역별로 방문, 3일씩 가축진료서비스를 진행한다.

첫째 날에는 지역별 가축질병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의 질병컨설팅을 진행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한우와 젃소 등 큰 가축 위주의 현장 진료서비스를 한다. 또한, 진료서비스 제공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 가축방역기관 등과 질

병진단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질병발생상황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사후관리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별 맞춤형 책자와 홍보지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송용섭 과장은 “최근 국내 산업동물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의 고령화와 신규 산업동물병원 개업수의사의 감소로 인해 진료서비스 취약지역이 발생되고 있어 현장 맞춤형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이동동물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회와 설문조사도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의 MOU 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은 9월 2일(월) 수원시 소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세미나실에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정일정)과 ‘농축산분야 교육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농축산분야 교육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상호 협조 ▲ 양 기관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및 농축산 전문지식의 공유 ▲ 농축산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상호 자문, 정보 교류 ▲ 교육관련 우수 강사풀 및 시설·기자재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규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상호신뢰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농축산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 및 농축산 교육발전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자”고 하였으며, 정일정 원장은 “양 기관이 축산물 위생·안전과 농축산식품 교육의 전문기관으로써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축산식품분야 우수 인적자원 양성에 힘쓰자”고 하였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 안테나숍으로 중국 내륙시장 개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륙 2·3선 도시에 해외 안테나숍인 ‘K-FOOD SHOP’을 설치하여 우리 농식품 신규시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비해 우리 농식품 진출이 미미한 지역인 청두(成都)와 시안(西安)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륙 거점도시 중 하나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 농식품의 진입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유명 유통매장 내에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8월부터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마켓테스트 및 시장정보 조사, 판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이번 안테나숍을 계기로 청두(成都)와 시안(西安) 대형유통매장 내에 우리 신선우유가 입점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

» 정부기관소식

다. 앞으로도 신선우유를 비롯한 유자차, 떡볶이, 음료 등 다양한 품목을 입점시켜 현지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수 aT 사장은 “우리 농식품의 진출가능성이 있는 곳에 해외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는 물론,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는데 aT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aT는 중국 내륙시장 이외에도 동남아(동말레이시아), 중남미(멕시코, 브라질)에도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동유럽 및 중동시장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 농협중앙회

농협, 신개념 유통채널로 축산물가격은 ↓ 소비는 ↑

농협중앙회(축산경제대표 남성우)는 지난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신개념 축산물유통채널 진출과 연중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물 산지가격이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인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면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농협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우리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개념 유통채널을 신설하고 전국 농축협판매장을 통해 매월 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1) 신개념 유통채널인 칼 없는 정육점, 즉석가공품판매점, 사이버장터를 개설한다.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축소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거친 안심축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① 칼 없는 정육점을 통해 동네마트에서도 국내산 축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협은 도축·가공단계에서 200~400g 단위로 소포장하여 바로 인근마트로 공급한다. 마트에서는 1.5㎡의 적은 면적만 있으면 냉장 쇼케이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농협은 칼 없는 정육점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올해 150개소를 신설하고 2016년까지 450개소로 확대한다. 위생적인 포장육 유통과 동네마트에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져 구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둔갑판매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해당마트는 경쟁력을 높여 매출증대효과도 거둘 수 있다.

② 정육점에서도 즉석으로 제조한 소시지와 돈가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올해까지 즉석가공품 판매점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2016년까지 80개소로 확대한다. 기존 농축협 축산물 판매점에 가공설비를 추가하여 운영되며, 농협축산연구원의 자가품질검사와 축산물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철저한 위생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즉석가공품 판매점을 통해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불균형도 해소한다. 상대적으로 소비가 부진한 앞·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를 즉석에서 고급 소시지와 돈가스 등으로 가공·판매하여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시범점포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안심축산물전문점, 목우촌 가맹점, 축협 판매장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산에서 유통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여 축산물 구매도 가능해진다. 올 11월에는 유통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여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를 오픈하여 유통비용

비중을 45.3%에서 30.3%로 15%P 절감한다.

(2) 추석맞이 전국 직거래 장터를 열고, 매일 전국 농협판매장을 통해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우리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 ①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덜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시중가 대비 30~50% 할인 판매한다. ▲ 강남구청 직거래장터(9.12) ▲ 과천바로마켓장터(9.11~12) ▲ 농협지역본부 및 지자체 연계 직거래장터(9.9~17) 등이 열린다.
- ② 또한, 매일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전국 농축협 판매장을 통해 진행한다. 19일까지 한우고기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최대 56%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후에는 ▲ 10월, 한우 부산물 소비확대 행사 ▲ 11월, 한우의날 기념행사 ▲ 12월, 송년맞이 감사할인을 진행한다. 농협은 올해 1월부터 매일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한우 2만5천여두 규모의 판매실적을 거양해 가격안정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다.
- ③ 축산물이동판매차량이 전국 170곳에 상설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올해 78대의 이동판매차량이 6천6백회에 이르는 직거래장터를 열어 전국 곳곳에서 저렴하게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남성우 축산경제대표는 “엄연한 식량자원으로 자리 잡은 우리 축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축산농가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나눔축산운동본부

은평노인복지관에 600만원 상당 후원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추석을 맞아 독거노인들과 축산물로 정을 나눴다. 나눔축산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 남성우 농협축

산경제대표·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는 지난 9월 16일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을 찾아 600만원 상당의 축산물세트(목우촌햄)를 전달했다. 이날 직접 은평노인종합복지관(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을 찾은 남성우 대표와 이창호 대표는 김승자 관장에게 무료급식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은평구 거주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이날 후원받은 축산물세트를 독거노인 400명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눠줬다. 남성우 대표는 “지방뿐 아니라 도시에도 인구 고령화와 경기불황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후원취지를 밝혔다. 이창호 대표도 “추석을 맞아 축산인들이 힘을 모아 마련한 후원금으로 소외계층과 우리 축산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범축산업계 사회공헌운동체인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국에서는 연말에는 희망의 연탄나눔, 사랑의 김장나눔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하고 향후 농촌지역 뿐 아니라 도시의 소외계층에도 나눔의 손길을 더욱 넓혀 지속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013. 09. 25